

축 사

조 영 택

(행정자치부 차관보)

존경하는 지방재정 관계자 여러분!

민선자치 3기가 출범하는 시기에 즈음하여 환태평양의 전진기지인 이곳, 향도 부산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의 회고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지방재정학회 김동건 회장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오형환 회장님,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학회회원님, 지방의회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방재정 관계자 여러분!

지난 한달 동안 한반도를 달구었던 월드컵대회에서 우리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세계 4강진입」이라는 놀라운 신화를 창조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가 함께 놀란 민족적 쾌거요, 역사적 대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대미문의 대성과는 운이 좋아서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선수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연습하고 준비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재정도 지방자치를 꽃피우고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간의 운영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地方自治의 發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自主財源을 擴充해야 합니다.

민선이후 세외수입 증대등 재원확충을 위해,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중앙정부에서도 교부세 법정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 지원, 사회복지지출 증가등으로 지방비부담은 가중되고, 지역개발 등 자체사업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별로 탄력세율 활용, 수수

4 축사

료·사용료 현실화등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면서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 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 검토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地方財政管理體系를 改善하여 보다 效率的으로 運營해야 합니다.

정보화, 세계화의 진전은 지방재정분야에서도 더 이상 현재에 안주하는 것을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따른 회계 방식과 재정통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재정에 『복식부기』와 『통합재정수지』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갖춘 『지방예산·결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자치단체의 지방재정운영상황을 종합·비교·분석하여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의 전시성·선심성 예산집행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최대한 억제하여 지방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지방채발행승인, 예산편성 지침등의 재정관리제도를 심분 활용하여, 예산을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하고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우리 모두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등 위법하게 재정을 운용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재정페널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경비절감 등 지방재정을 내실있게 운용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방재정관계자 여러분 !

우리는 지난 월드컵 축구경기를 통해 ‘역동적 한국(Dynamic Korea)’을 전 세계에 보여 주었습니다.

거리를 뒤덮은 붉은 악마의 물결은 이제 이념투쟁이나 극한 파업 투쟁이 아닌, 동서갈등, 남북갈등을 뛰어 넘는 단결과 화합의 상징이었다고 내외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축구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한층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더 높여 놓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재정분야에서도 낡은 껍질을 벗는 새로운 각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월드컵대회와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루어낸 성숙된 국민적 자신감으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아 갑시다.

현실의 개혁은 단순히 좋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를 실천하고자 의지가 그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때,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애써 오신 지방재정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열리는 이번 세미나가 앞으로 지방 재정제도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 7. 11.

행정자치부차관보 조영택